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7 국가직 7급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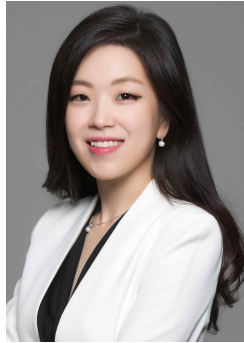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 홍익대학교, 응지세무대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문법·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어휘한자·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 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연재



2017 국가직 7급

문 1.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 ②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멋있어 보인다.
- ③ 살코기는 장에 줄여 먹고 창자는 것갈을 담궈 먹는다.
- ④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는 의문사 ‘왜’와 어미 ‘-(이)ㄴ지’로 분석되므로 ‘왠지’로 적는다.

‘왠지’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왠은 ‘어찌 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 이므로 ‘왠지’라고 적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대가(代價)’는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 [대 : 까]로 발음하지만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된소리가 나타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비교)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창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 ‘-어야’가 올 때는 ‘- 규칙 활용’을 적용하여 ‘치러야’로 적는다.

③ ‘살코기’의 ‘살’은 과거 ‘살ㅎ’으로, ‘ㅎ’ 중성체언이었다. ‘살ㅎ’과 ‘고기’를 결합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 제31항에 따라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어 ‘살코기’로 적는다.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란 의미의 동사는 ‘조리다’로 적는다.

‘줄이다’는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의 사동사로 쓰이거나,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란 의미로 쓰인다.

‘답그다’의 어간 ‘답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 ‘-아’가 올 때는 ‘- 규칙 활용’을 적용하여 ‘답가’로 적는다.

④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12항에 따라 ‘웃어른’이라 적는다.

2017 국가직 7급

문 2.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헛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노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압죽 흥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릭야 교탁야 어즈러이 구뎃쎄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 (중략) ...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딤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반드시 비췌리라.

각시님 돌이야키니와 구준 비나 되쇼서.

- 정철, 『속미인곡』 -

- ① ㉠: 사랑받음직
- ② ㉡: 다른 생각이
- ③ ㉢: 아양이야
- ④ ㉣: 반드시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어휘)

㉣ ‘반드시’는 ‘환하게’라는 의미이다.

지문> 정철, <속미인곡>

[현대어 풀이]

<서사>

저기 가는 저 부인, 본 듯도 하구나.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노고?

아, 너로구나. 내 사정 들어 보오.
내 얼굴과 이 나의 태도는 임께서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특별히 여기시기에
나도 입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아양과 응석을 부리며 지나치게 굴었던지
반기는 낮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중략]

<결사>

아 허황한 일로다. 이 임이 어디 갔노고?
즉시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이 계신 창문 앞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커녕 곳은비나 되십시오.

2017 국가직 7급

문 3. 다음에서 설명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문은?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원리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격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겸양의 격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① 가: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② 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 ③ 가: 정운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뒤서 어려운 것 같아.
- ④ 가: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펬요.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 정답: ① - 독해 - 화법 - 겸양의 격률

'겸양의 격률'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칭찬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낮춘 '나'의 자세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나래국어, 독해 플러스1 <공손성의 원리>

-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 관용의 격률: 화자 자신에게 해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 찬동의 격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라.
- 동의의 격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라.

★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귀가 안 좋다고 이유를 들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이다.
- ③ 정운아 명령의 의문형으로 제시하면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요령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 ④ 상대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을 초래하였다.
-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한다.

- | | | |
|------|----|----|
| ㉠ | ㉡ | ㉢ |
| ① 혼돈 | 지양 | 개발 |
| ② 혼돈 | 지향 | 개발 |
| ③ 혼동 | 지양 | 개발 |
| ④ 혼동 | 지향 | 개발 |

★ 정답: ① - 어휘 - 혼동어휘

- ㉠ 혼돈 「명사」: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예)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였다.
- ㉡ 지양하다 「동사」: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
예) 상업주의를 지양하다.
- ㉢ 개발하다 「동사」: 【...을 ...으로】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다.
예) 광산을 개발하다

★ 오답 해설:

- 혼동 「명사」:
1.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함.
예) 잠이 다 깨지 않았는지 그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켰다.
2. 서로 뒤섞여서 하나가 됨.
지향하다 「동사」: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
예) 평화를 지향하다
- 개발하다 「동사」: 【...을】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주다.
예) 소질을 개발하다

2017 국가직 7급

문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문학' 또는 '한글소설'이란 뭘까? 손쉽게,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삼은 문학, '한글로 쓴 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다. 한국 고전소설을 '한문소설/한글소설'로 나누는 관점에,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해 있을 게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분류일까? 적어도, 자연스러운 분류일까? 그 관행 바깥에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문과 한글이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문과 한글은 왜 맞세울 수 없는가? 한문은 고전중국어라는 자연언어나 그 자연언어로 짜인 텍스트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한글은 1446년에 반포된 표음문자를 가리키는 때문이다. 그 둘은 층위가 크게 다르다. 한글과 맞세울 수 있는 개념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다.

그러니까 한문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거의 쓸모없는 개념이다. '한글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은, '로마문자소설'이나 '키릴문자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는 있지만, '창작'하거나 '번역'할 수는 없다. 적어도 표준적 언어 사용에 따르면 그렇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의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테다.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설공찬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시든 아니든 『홍길동전』은 _____

- ①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 ②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고, 따라서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 ③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되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 ④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되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 정답: ① - 독해 - 비문학 - 빈칸 추론

1문단에서는 한문과 대비되는 개념은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라고 하였다. 한문은 자연언어나 그 텍스트를 가리키고, 한글은 문자를 가리키기에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2, 3문단에서는 ‘한글소설’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쓸모없는 개념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글로 창작된 홍길동전은 한국어소설이라고 명명해야한다는 것이 제시된 글의 주장이다. 그리고 한글문학과 한글소설은 따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한국어소설이라고 명명했다면 한국어문학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①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6.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이번 고적 踏事는 영남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 ②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詐過했다.
- ③ 이 일은 迅速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④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崩塊되었다.

★ 정답: ③ - 어휘(한자) - 한자의 표기

迅速(빠를 신, 빠를 속): 날세고 빠름.

★ 오답 해설:

- ① 踏事(발을 답, 일 사) → 踏査(발을 답, 사찰할 사): 그곳에 실지로 가서 보고 자세히 조사함.
- ② 詐過(속일 사, 지날 과) → 謝過(사례할 사, 지날 과):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
- ④ 崩塊(무너질 붕, 흩날리 과) → 崩壞(무너질 붕, 무너질 과): 허물어져 무너짐.

2017 국가직 7급

문 7.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앞에서 단기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단기 기억은 그 기억 용량에서나 기억 시간 면에서 모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장기 기억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가정하자. 국민의례 순서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다. 이때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오류 없이 그 가사를 회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애국가 2, 3, 4절로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부정확해진다.

이처럼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반면,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되거나 부정확해진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험 날까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자기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시간에 회상해 내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험,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해서 (㉢)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 | | | |
|----------|--------|--------|
| ㉠ | ㉡ | ㉢ |
| ① 건실(健實) | 소거(消去) | 곤욕(困辱) |
| ② 견고(堅固) | 소실(消失) | 혼곤(昏困) |
| ③ 확고(確固) | 소멸(消滅) | 곤혹(困惑) |
| ④ 확실(確實) | 소진(消盡) | 혼란(混亂) |

★ 정답: ③ - 어휘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 언제라도 오류 없이 가사를 회상해 내는 경우는 기억이 확고하게 저장된 경우이다.

- 건실(健實)하다: 「1」 생각, 태도 따위가 건전하고 착실하다. 「2」 몸이 건강하다. 「3」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 견고(堅固)하다: 「1」 굳고 단단하다. ㉠ 견고한 제방을 쌓다. 「2」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 ㉡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켰다.
- 확고(確固)하다: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다.

㉡ 의지가 확고하다

• 확실(確實)하다: 틀림없이 그러하다.

㉢ 확실한 증거

㉡ 지속되다가 이내 회상해내지 못하게 된 기억은 소멸된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소거(消去): 「1」 글자나 그림 따위가 지워짐. 또는 그것을 지워 없앴.
- 소실(消失): 사라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없어버림.

㉢ 기록이 소실되다

• 소멸(消滅): 「1」 사라져 없어짐.

㉣ 소중한 민족의 오랜 유산들이 날로 날로 소멸해 가는 판국이라 슬프다.

• 소진(消盡):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앴.

㉤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나니 힘이 다 소진되었다.

㉢ 시험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잊어버린 상황은 곤혹스럽다고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곤욕을 치르다

• 혼곤(昏困):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픔.

•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을 느낀다

• 혼란(混亂):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2017 국가직 7급

문 8. 다음 글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언행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영금영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여쭙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웁니다. 남의 아들된 자들은 그 효성을 법으로 사모하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신룡과 짝이 되어,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처럼 하토의 천한 신하는 감히 그 바람 아래 서읍니다.” 범이 이 말을 듣고 꾸짖었다.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난번에 내가 들으니 ‘유(儒)’는 ‘유(讓)’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에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서 망령되게도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낮간지러운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을 누가 곧이들겠느냐?”

- 박지원, 『호질』 -

- ① 牽強附會 ② 巧言令色
③ 名論卓說 ④ 橘化為枳

★ 정답: ② -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한자 성어

북곽 선생은 범을 험담하던 평소의 태도를 바꾸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찬양하고 있다.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라는 뜻의 ‘巧言令色(교언영색)’으로 북곽 선생의 언행을 묘사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牽強附會(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기는 상황에서 쓰이는 성어이다. 범을 찬양하기 위해 억지로 말을 끌어 붙인 것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아니므로 북곽 선생의 태도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③ 名論卓說(명론탁설): 훌륭하고 이름난 이론이나 학설.
④ 橘化為枳(귤화위지): 회남의 귤을 회북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

2017 국가직 7급

문 9. 밑줄 친 단어가 다음에서 설명한 동음어로 묶인 것은?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같게 된 말들의 집합이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된다.

- ①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너의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겠다.
② 이 방은 너무 밝아서 잠자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③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④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 일은 인부를 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의미론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다리⁰의 ‘2’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한강 다리: 다리⁰의 ‘1’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이라는 의미이다.

두 예문의 ‘다리’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 오답 해설:

① 뒤로 갈수록: 뒤⁰의 ‘4’ 일의 끝이나 마지막이 되는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뒤를 봐주겠다: 뒤⁰의 ‘6’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하거나 도와주는 힘’이라는 의미이다.

두 예문의 ‘뒤’는 뒤⁰의 ‘1’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에서 파생되어 의미상 연관성을 갖는 다의어이다.

② 방이 밝다: 형용사 ‘밝다’의 [1] ‘1’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이다.
계산에 밝다: 형용사 ‘밝다’의 [2]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라는 의미이다.

‘계산에 밝다’의 ‘밝다’는 ‘밝다’의 중심의미인 ‘불빛 따위가 환하다.’에서 파생되어 의미상 연관성을 갖는 다의어이다.

④ 합성세제를 쓰다: 쓰다⁰의 ‘1’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라는 의미이다.

인부를 쓰다: 쓰다⁰의 ‘2’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리다.’라는 의미이다.

‘인부를 쓰다’의 ‘쓰다’는 ‘쓰다⁰’의 중심의미인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에서 파생되어 의미상 연관성을 갖는 다의어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10.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곧 선(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기술이란 사회의 변화나 인식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망정 가치판단을 내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①

우리나라도 어느덧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IT 기술이나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이 큰 폭으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할 기술적 진보는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서로 만나고 다양한 이슈에 동참할 수 있는 답론 공간의 마련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회나 정치 이슈를 주제로 활발하게 타자(他者)와 접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이 불필요하게 생각되거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인신공격 등의 병리 현상은 철학이나 가치 부재의 기술 진보가 주는 위험성을 잘 드러내 준다. 우리는 기술 진보에 따라 확보된 수많은 소통 통로 속에서 그것을 주체와 주체 간의 참다운 만남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일까? IT 또는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시켰다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어느 한 기업가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장소에서 자사의 혁신적 제품은 인문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즉 첨단의 정보화 기술과 인문학의 관련성을 역설한 것이다.

④

★ 정답: ② - 독해 - 비문학 - 배치

<보기>는 앞서의 기술 진보가 주체 간 소통의 통로(도구)는 마련해주었지만, 올바른 방법은 마련해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보기> 앞에는 기술 진보로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내용이 위치해야 하고, 뒤에는 소통의 올바른 방법과 연관된 내용이 위치해야 한다.

②는 앞서의 첫 문단에서 기술적 진보로 담론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에 나오는 문단에서 소통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 위치하므로 <보기>가 들어갈 곳으로 적절하다.

2017 국가직 7급

문 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③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ㄴ마’는 앞말과 붙여 쓴다.

예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바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를 뿐이다.

참고) 의존 명사 ‘바’는 앞말과 띄어 쓴다.

「1」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예 평소애 느낀 바를 말해라

「2」 ((어미 ‘-을’ 뒤에 쓰여))일의 방법이나 방도. 예 어찌할 바를 모르다

「3」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 오답 해설:

① 첩어 또는 준첩어는 한 덩어리가 되게 붙여 쓴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안절부절못하다’로 붙여 쓴다.

②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한자 기원의 접미사 ‘-여(餘)’는 앞말과 붙여 쓴다.

④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만큼’은 앞말과 띄어 쓴다.

의존 명사 ‘만’에 ‘-하다’가 붙은 보조 용언 ‘만하다’는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12.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것은?

-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 ② 검불다, 굳세다, 밤낮
-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부슬비: 부사 ‘부슬’이 명사 ‘비’를 수식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늦더위: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없이 어간 ‘늦-’과 명사 ‘더위’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참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늦-’이 등재되어 있다. 접두사 ‘늦-’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늦더위’를 파생어로 볼 수도 있다. 굶주리다: 연결 어미 ‘-고’ 없이 동사 ‘굶다’와 ‘주리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참고) 단어의 형성 - 합성어(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문법의 단권화)

유형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형사형 어미의 유무	큰집, 작은집	달밤, 접갈, 늦더위, 감발, 목발
연결 어미의 유무	돌아가다, 나아가다, 오고가다	검불다, 눈푸르다, 굶주리다, 오가다, 나가다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	-	출랑새, 부슬비
어순	학교(學校) 필승(必勝) 일몰(日沒) 고서(古書)	독서(讀書), 등산(登山), 급수(給水)

★ 오답 해설:

① 힘들다: ‘힘이 들다’에서 조사 ‘이’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작은집: 2015년에 접두사 ‘작은-’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삭제되어 ‘작은집’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돌아오다: 동사 ‘돌다’와 ‘오다’가 연결 어미 ‘-아’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검불다: 연결 어미 ‘-고’ 없이 형용사 ‘검다’와 ‘불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굳세다: 연결 어미 ‘-고’ 없이 ‘굳다’와 ‘세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밤낮: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명사 또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이는 ‘밤낮’은 명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또한 명사 ‘밤낮’은 대등합성어, 부사 ‘밤낮’은 융합합성어이기도 하다.

④ 빛나다: ‘빛이 나다’에서 조사 ‘이’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보살피다: 연결 어미 ‘-고’ 없이 동사 ‘보다’와 ‘살피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르내리다: 연결 어미 ‘-고’ 없이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13. 높임법 사용이 옳은 것은?

- ①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쭙어 보고 결정할게.
- ②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 ③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 ④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예절

객체인 부사어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적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였으며 '물어보다'를 높인 특수어휘인 '여쭙다'를 사용하였다.

★ 오답 해설:

② 직장에서 자기보다윗사람에 대해 말할 때에는 듣는 이에 상관없이 높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장과 부장 모두를 높여 '오시라시는데'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시간'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므로 '계시다'를 쓰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 있으십니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큰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술을 점잖게 이르는 말인 '약주', '떡다'의 높임말인 '들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한 '드셨는데',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저', '테려다주다'의 높임말인 '모서다드리다', 그리고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큰아버지의 '집'은 '택'으로 높여야 한다.

④ '교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말을 낮춘 '말씀',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란 의미의 동사 '드리다',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다'는 높임법에 어긋나므로,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란 의미의 '뵈다'를 활용하여야 한다.

2017 국가직 7급

문 14.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 구청에서는 ㉠ 도로 노면에 노란색 띠줄을 표시하거나 ㉡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어린이 교통사고는 맑은 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 예지력(豫知力)이 떨어져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 ② ㉡: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 중심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豫知力)'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 정답: ④ - 독해 - 작문 - 고쳐 쓰기

'예지력(豫知力)'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능력'을 의미하고 '추진력(推進力)'은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예지력'과 '추진력' 모두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과는 무관하므로 '예지력'을 '추진력'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문맥에 맞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노면(路面)'은 '길바닥'이라는 의미이다. '도로 노면'은 '도로'와 '노(로)'가 중첩된 표현이므로 '노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를 주의시킨다는 앞 내용과 앞 내용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뒤 내용이 역접하므로 접속 부사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제시된 지문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날씨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7 국가직 7급

문 1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세우청강(細雨淸江) 서느립다 밤 기운이야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 ① 이별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 ② 반어법을 동원하여 가을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 ③ 점감법을 활용하여 계절 감각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이해

지문에 제시된 작품은 임을 그리는 내용을 담은 정철의 시조이다. 3행에서 이별한 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임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3행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은 드러나지만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여 가을의 정취를 강조하였다.
- ③ 계절 감각은 드러나 있으나 점감법(강한 표현에서 점차 약한 표현으로 서술하여 뜻을 강조)은 활용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7급

문 16.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것은?

- ①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 ②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 ③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 ④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보기'는 '보다'의 어간 '보-'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한 것인지를,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명사형 전성 어미 '-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다'를 명사절로 만들어 서술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다.

'떠먹어 보았다'의 '보다'는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현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동사이다.

★ 오답 해설:

- ① 접미사 '-적'이 붙은 말은 명사, 관형사, 부사로 품사 통용된다.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것으로 보아 '한국적이다'의 '한국적'은 명사이다. 뒤에 오는 명사 '정취'를 수식한 것으로 보아 '한국적 정취'의 '한국적'은 관형사이다.
- ②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품사 통용된다. 첫 번째 문장의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란 의미인 형용사 '크다'이다. '-나'를 활용하여 '크다'로 쓰면 의미가 왜곡되므로 동사 '크다'의 활용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문장의 '크다'는 동사이다. '크다'로 활용하여도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동사 '크다'임을 알 수 있다.

'크다'가 의미상 다음과 같을 때에는 동사이다.

• 동사 ‘크다’의 의미

1.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2.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3.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
- ④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을 구별해야 한다. 관형사 ‘만’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서술성 없이 ‘물건’을 수식하기만 하는 첫 번째 문장의 ‘다른’은 관형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다른’은 안긴문장의 주어 ‘성질’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17.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對話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것도 重要하다. 특히 ①圓闊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②共感하며 듣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상대의 처지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고 들을 때, 대화와 ③妥協을 통해 서로의 ④利害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 정답: ① - 어휘(한자) - 한자의 표기

圓闊(등글 윈, 트일 활) → 圓滑(등글 윈, 미끄러울 활): ① 일이 거침 없
이 잘 되어 나감, ② 규각이 없고 원만함

☆ 오답 해설:

- ② 共感(함께 공, 느낄 감): 남의 의견·주장·감정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런 기분.
- ③ 妥協(온당할 타, 맞을 협): 두 편이 서로 종도록 조정하여 협의함.
- ④ 利害(남카로울 리, 해칠 해): 이익과 손해, 득실.

2017 국가직 7급

문 1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롤랑 바르트는 『기호의 제국』에서 “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 등은 모두 미디어로부터 ‘복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가가 다른 책의 구절들을 씨앗글로 인용하는 일을 계기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우리는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성형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성형을 하는 사람은 쇼핑하듯 트렌드가 만든 미인 얼굴을 구매한다.

- ① 롤랑 바르트는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예찬론자이다.
- ②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가 사람들의 미의식을 세련되게 했다.
- ③ 모방이나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④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로 인해 성형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 - 비문학 - 주제

글은 몰랑 바르트의 서술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미디어로부터 받은
영향의 결과물이라 주장한다. 우리의 패션, 표정 등도 남의 것이 복제되어 나
타난 것일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인공된 롤랑 바르트의 서술에서 모방이나 복제 문화에 대한 가치판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② 글에서 사람들의 미의식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았다.
- ④ 성형 트렌드 현상을 언급한 것은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하다.

2017 국가직 7급

문 19.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생 생물과 숙주는 날을 세운 창과 무쇠를 덧댄 방패와 같다. 한쪽은 끊임없이 양분을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방어하려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생 생물은 가능한 한 숙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유리하지만 숙주가 죽게 되면 기생 생물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 기생 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생 생물은 최적의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중용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쯤 되면 기생 생물은 자신의 종족이 장기적으로 번성하려면 많은 양분을 한꺼번에 빼앗아 숙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빼앗아 숙주를 살려 둔 상태로 장기간 수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보통, 미생물은 인간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낮은 숙주인 인간을 강력하게 공격한다. 설상가상으로 낮은 미생물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의 면역계는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낮은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2세기경 로마 제국에서는 알 수 없는 역병이 두 번에 걸쳐 유행했다. 이 역병의 대유행으로 치질 대로 치진 로마는 4세기경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학자들은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던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홍역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유아 질환으로 자리 잡은 홍역의 위력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홍역 바이러스가 처음 인간의 몸에 유입되었을 때 인간은 이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유행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점차 독성이 약해진다. 이는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려고 한발 물러서는 한편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발 나아감에 따라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 ①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 ②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 ③ 홍역은 로마의 전투력 약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 ④ 숙주는 기생 생물의 서식처이다.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 정답: ② -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숙주가 기생 생물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와는 다르게 항체를 만들어 낸다는 점도 홍역 바이러스 독성 약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이 일방적으로 승리한다고 하였다.
- ③ 2문단 넷째 문장에서 홍역의 대유행으로 게르만족 침입 때 로마는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 문장에서 홍역이 로마 골병의 장본인이라고 하여 전투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 ④ 1문단 다섯째 문장에 그대로 언급된 내용이다.

2017 국가직 7급

문 20.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르릉~ 쿵!’ 하고 천둥이 울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래서 ‘뇌동(雷同)’이란 말이 생겨났다. 내가 우렛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하지만 반복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뒤에야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만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다. 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화부(華父)가 지나가는 미인에게 눈길을 주는 일’이 나오는 대목을 읽고는 그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니, 이것만은 스스로 미심쩍은 일이다.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한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칠 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지만,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 중에는 깜깜한 밤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 이규보, 『뇌설』 -

- 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필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서술상 특징

천둥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여러 차례 돌아본 후에 평온해진 경험, 지나가다가 미인을 만나도 눈길을 주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깨달은 경험, 남의 평가에 연연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전개한다.

★ 오답 해설:

- ② 춘추좌씨전의 내용이나 깜깜한 밤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옛사람의 사례를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필자의 생각을 나란히 비교하며 서술하지 않았다.
- ③ 권위 있는 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④ 질문으로 화두를 던진 후 그에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문장은 의문형으로 작성하여 해당 문장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유진

나/래/국/어

하반기 채용 대비도
나래국어와 함께!!
변화하는 공시국어
이유진 국어가 답이다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9월 6일(수) 개강
수 14:00~18:00
교재: 2018독해 알고리즘 (해리베스북)

우월한 독해 (문학)
9월 7일(목) 개강
목 14:00~18:00
교재: 2018우월한 독해 (박문각)

문법의 단권화 속성
10월 5일(목) 개강
목 14:00~18:00
교재: 2018문법의 단권화 워크북 (고시용)

**하반기 대비+N수를 위한
올인원 국어(문풀중심반)**
9월 7일(목) 개강
목 19:00~22:00
교재: 프린트 제공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380-9999 | 온라인 023489-9500